

선수 영입 실패·리더십 부재·운영 미숙 '최악 시즌'



박정아 영입 과정서 신인 1순위 지명권 양도 후배 괴롭힘 사건으로 베테랑 리베로 계약 해지 감독 선임 과정도 뒷말... 임기 마친 감독 없어

AI페퍼스의 시즌이 마무리됐다. 긴 연패 기록과 더불어 선수단 갈등과 감독의 리더십 부재 지적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다시다난했던 시즌을 보냈던 페퍼스다.

페퍼스는 5승 31패 승점17로 이번 2023-2024 시즌을 마무리했다. 7개 팀 중 최하위라는 성적도 3년 연속 변함이 없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시즌 내내 사무국이 구단 운영과정에서 실수를 이어오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먼저 선수 영입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페퍼스는 FA를 통해 박정아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고은을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한 차례 도로공사에 이고은을 내어줬다.

다시 이고은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도로공사에 양도하게 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 도로공사는 페퍼스가 내어준 지명권으로 188cm의 미들블로커 김세빈을 영입했다.

지명권 양도로 '최대' 김세빈을 데려올 기회를

놓친 페퍼스는 선수 영입 과정에서 '구멍'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엔 팀 내 '후배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베테랑 리베로와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지난달 페퍼스의 리베로 오지영이 후배선수 A, B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오지영은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결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구단은 상벌위의 징계 확정과 동시에 오지영에 대한 '계약 해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구단은 선수 A, B가 임의해지 신청을 하고 난 뒤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선수가 팀을 이탈하기까지 선수들 관계나 선수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구단의 파악이 미흡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무국이 아닌 감독 및 코치들의 역할이지만, 이를 총괄하는 주체는 구단인 만큼 제대로 된 팀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탈이 많았다.

페퍼스의 역대 감독들은 모두 임기를 끝 마치지 못하고 구단을 떠났다. 장단과 함께 부임한 김형실 초대 대추감독은 두 번째 시즌에서 개막 후 10연패를 하면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22년 11월 자진 사퇴했다. 2023-2024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아현 김 감독은 본격적으로 리그에서 한 경기도 지휘하지 않고 선임 4개월 만에 개인 사정으로 구단을 떠났다. 이후 캐나다 남·여자대표팀 코치를 거쳐 미국 여자배구 대표팀까지 지휘한 조 트린지 감독을 선임한 페퍼스는 '팀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조 트린지 감독 역시 이번 시즌을 매듭짓지 못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지휘해왔던 조 트린지 감독이지만 선수들의 패턴과 사령탑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잘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결국 구단은 이번 시즌 경기를 5개 남긴 상황에서 조 트린지 감독과의 계약 해지 수순을 밟았다.

구단은 새로운 감독에 대한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 시즌 봄배구를 위한 도약을 위해 감독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페퍼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



박세리 이름 전 LPGA 대회 개막

'세리 키즈' 신지애·김효주·전인지 등 출전



지난달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열린 '퍼 힐스 세리 박 챔피언십' 기자회견회에서 찰리 신 퍼 힐스 공동대표와 사진을 찍은 박세리.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이번 주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대회 호스트로 나선다.

현지 시간 21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베르데스 이스테이트의 팔로스 베르데스 골프클럽(파71-6447야드)에서는 박세리의 이름이 들어간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FIR HILLS SERI PAK Championship)이 열린다. 총상금 200만 달러(약 26억7000만원)에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는 로스앤젤레스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투자기업 퍼 힐스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이름을 바꿨다.

박세리는 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5승을 포함해 25승을 올린 뒤 2016년 은퇴했다. 2007년에는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회했다.

LPGA 투어는 "박세리는 스포츠에 지울 수 없

는 흔적을 남기고 은퇴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깊다"며 "박세리의 유산을 기릴 뿐 아니라 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배울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대회 의의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금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주로 활동하는 신지애가 초청 선수로 출전하고 김효주, 전인지, 박희영 등 이른바 '세리 키즈'로 불렸던 박세리의 후배들이 대거 출전한다.

올해 우승 소식을 전해줄 수 못한 한국 선수들은 시즌 여섯번째인 LPGA 투어 대회에서 첫 승전고를 울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골프랭킹 15위 안에 들어야 최대 4명의 한국 선수가 파리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세계랭킹 15위 안에 드는 선수 중 고진영(6위), 양희영(14위)은 불참하지만 김효주(9위)가 출전한다. 또한 세계랭킹 18위 신지애가 출전해 랭킹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넘버1' 셰플러, 최소 경기 상금 5천만 달러

최소 경기 신기록·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 달성도

타이거 우즈(미국)도 해내지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를 사상 최초로 이룬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최소 경기 출전 상금 5000만 달러 기록도 갈아치웠다.

18일 끝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상금 450만 달러를 받은 셰플러는 통산 상금을 5350만 달러로 늘렸다.

PGA 투어에서 5000만 달러 이상을 번 선수는 이제 15명으로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상금을 쌓은 속도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셰플러가 불과 113경기에 출전해 5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는 온 램(스페인)이 작년에 세운 141경기를 훌쩍 뛰어넘는 신기록이다.

람은 지난해 US오픈 우승과 함께 통산 상금 5000만 달러를 넘어서었다.

람 이전에는 169경기 만에 5000만 달러 고지에 오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가장 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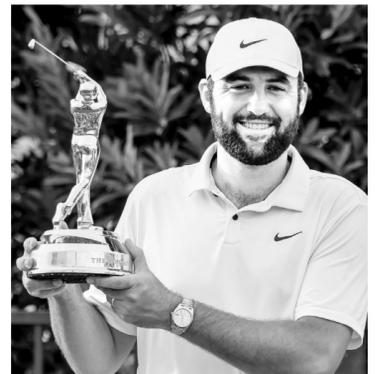
통산 상금 1위를 지키고 있는 우즈는 177경기 만에 5000만 달러를 넘겼다.

셰플러의 이번 기록 경신은 PGA 투어가 LIV 골프에 맞서 상금 규모를 키운 덕을 톡톡히 봤다.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우승 상금은 400만 달러,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450만 달러에 이르렀다.

단 2번 우승으로 850만 달러가 손에 들어왔다.

이런 특급 대회가 아니라도 PGA 투어 상금이 많아진 것도 한몫했다.



우즈는 2005년 500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우승 트로피는 무려 48개였다. 매길로이는 18번 우승하고 5000만 달러를 받았다. 셰플러는 이제 8승째다. /연합뉴스

오뚜기 안세영 "자신감 올라왔다...올림픽 기대하세요"

'우승 후 부상'으로 인한 고전

배드민턴 안세영이 이달 프랑스오픈과 전영오픈에서 거둔 성적은 표면적으로는 올해 1월 흐름과 비슷하다.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을 다친 안세영은 1월 말레이시아오픈 우승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지만, 그 다음주 인도오픈 8강전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이 겹쳐 기권했다.

이후 6주간의 재활을 거친 안세영은 오뚜기처럼 일어나 이달 10일 프랑스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 2연패까지 노려봤지만,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와의 준결승전에서 체력 문제를 드러내며 석패했다.

2전3기에 성공했는데 곧바로 또 넘어진 셈이다. 하지만 안세영은 좌절하며 아파하기보단 그 과정에서 성장한 자신에 주목한다.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안세영은 "1월에는 제가 기권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곳곳이 4강까지 가서 버텼다는 것이 나아진 점"이라며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왔고 앞으로가 더 기대

된다"고 힘차게 말했다.

안세영은 "부상으로 걱정하고 긴장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내서 만족스럽다. (전영오픈 4강전 같은) 경기를 올림픽에서 뛰었다면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뛰어서 다행이다"며 "긴 경기, 랠리를 뛰다 보니가 무릎 때문에 아팠지만, '이게 내가 배드민턴을 하는 이유구나' 하고 느꼈다. 긴 시간을 버티다 보니가 많은 걸 또 배웠다"고 했다.

애초에 1차 목표가 프랑스오픈이었기에 속도도 적지 않다.

이 대회는 6달 뒤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포르투갈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코트 각을 미리 익히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볼 좋은 기회였다.

안세영은 "올림픽이 열리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한 경기만 더 뛰어야'는 마인드였다. 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쏟아부으려는 생각이 강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4개월 뒤에 올림픽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된다.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물론 오뚜기 같은 안세영도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안세영은 전영오픈 4강전을 떠올리며 "부상이 조금 원망스러웠다"면서 "(훈련 기간) 몸이 좀처럼 안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아쉬웠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트레이너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울컥했다"고 돌아봤다.

아마구치, 천위페이(중국), 타이즈잉(대만)과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도 "다들 계속 분석해서 나오는데 저는 한 발짝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많이 아쉽다"고도 했다.

안세영의 다음 대회는 내달 9일 아시아개인선수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는 몸 상태에 따라 출전 대회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안세영은 "시드 1번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경기를 뛰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것"이라면서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대회를 많이 안 뛴 생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파묘
2관	둔: 파트2, 가여운 것들
3관	랜드 오브 배드, 밤 말라: 원 러브, 메이 디셀버
4관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5관	둔: 파트2, 윙카, 당신이 잠든 사이
6관	파묘, [위드키즈]브레드이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9관	파묘, 당신이 잠든 사이
7관	씨네커플 파묘
8관	씨네커플 파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광주상설연극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유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